

# 보도자료 차국판뉴딜



				_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5. 24.(월)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담당과장	천은선(044-203-2891)	담 당 자	서기관 유지열(044-203-2893)	

## 지역 주도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자원 개발

- '2021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에 삼척, 단양, 진안, 영주, 남해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을 공모한 결과, ▲ 강원 삼척, ▲ 충북 단양, ▲ 전북 진안, ▲ 경북 영주, ▲ 경남 남해 등 5개 시·군의 사업계획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노후·유휴 문화관광 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잠재력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로 4년간 국비 6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지워받는다.

#### 지역 특화자워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등 평가

이번 공모에는 서울·제주 및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가 자체 선정 과정을 거쳐 16개 시·군 사업을 신청했다.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광, 건축디자인, 도시계획,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계획의 타당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기대 효과 및 지속 가능성 등 공모 시 공개된 기준에 따라 서류와 현장 평가를 진행해 최종 5개 시·군의 사업을 선정했다.

#### <5개 시·군 사업 주요 내용>

- (강원도 삼척시) '동굴은 살아 있다! 삼척케이브파크 178'을 주제로 대이리 동굴 지대를 활용한 동굴치유(힐링). 지능형(스마트)동굴. 미디어숲 조성. 관광환경 개선 등 동굴의 재발견ㆍ재탄생 사업을 제안해 바다와 산ㆍ동굴 등 삼척시의 다양한 관광매력 제고
- (충청북도 단양군) '다리안 디 캠프(D-CAMP) 플랫폼 조성'을 주제로 다리안 관광지 내

유휴 유스호스텔 시설을 마을호텔, 스튜디오, 체험프로그램 등 특화된 체류형 숙박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기획, 노후 관광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드는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힐링 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를 주제로 수려한 마이산의 풍경과 지역 특화산업인 홍삼 한방을 융·복합한 치유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홍삼한방타운 치유거점 조성, 인근 농촌체험 마을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안해 치유관광명소로 도약 준비
- (경상북도 영주시) '안빈낙도, 힐링 영주'를 주제로 기존 소수서원, 선비세상 등 유교 관광자원과 연계한 안(安)·빈(貧)·낙(樂)·도(道) 4개의 주제 구간을 설정해 이야기를 접목한 흥미 있는 관광콘텐츠를 운영하고 한(韓)문화 관광사업체를 발굴하는 등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개발사업 추진
- (경상남도 남해군) '구텐타그(Guten tag)!, 여권 없이 떠나는 독일여행'을 주제로 플라츠 광장에서 요일 장터, 월별 축제 등을 열고, 마을상생협의체, 청년 관광기획자 등과 협업해 인근 마을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기반을 만드는 등 독일마을이 남해 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세부 계획 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협력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1차연도인 올해는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별 사업 내용과 규모를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지역의 담당 공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사업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 일정 등을 공유하는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기본계획 수립 자문도 지원한다.

### 지역관광이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은 매력 있는 지역 특화 콘텐츠와 지역관광 기반시설, 관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운영 역량을 키워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역관광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이 한 차원 도약하고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서기관 유지열(☎ 044-203-28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